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주일예배

numbers
vol. 281

한국 기독교 140주년 특집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것,
‘해방 전은 항일민족운동, 해방 후는 민주화운동!’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
- ② 한국의 사회지표 2024 (사회갈등, 사회적 고립감)

2025. 4. 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것, ‘해방 전은 항일민족운동, 해방 후는 민주화운동!’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40년이 흘러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 주요 기관, 교회들이 14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의뢰로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를 해방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국선교

기념

주일예배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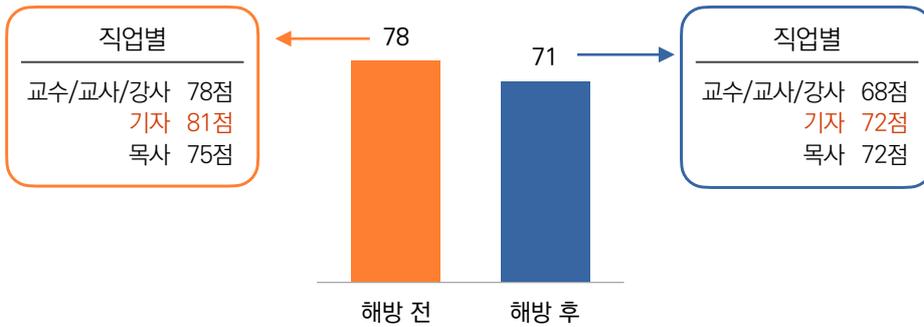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교수, 목사, 역사교사, 언론인 등)
조사 방법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 - 본 설문 전에 7명의 기독교 각 분야별 리더를 대상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함
표본 규모	총 140명 (유효 표본)
표본추출방법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10월 25일 ~ 11월 6일(12일간)
조사 주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조사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한국 기독교, 과거와 현재 평가] 기독교의 한국사회 기여도, 해방 전이 해방 후보다 높아!

-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해방 전' 영향력 평가는 78점으로, '해방 후' 71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해방 전후 모두 기자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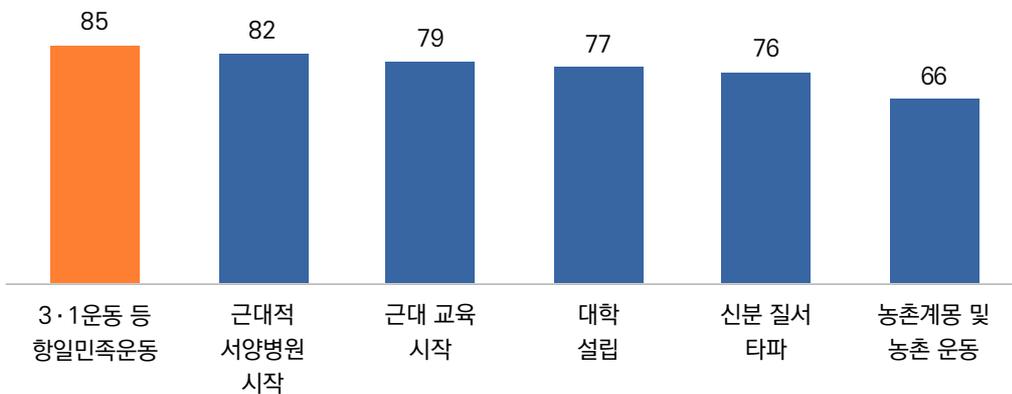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100점 만점 기준, 점)



해방 전 기독교, '항일민족운동'(85%)으로 가장 큰 사회 기여!

-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3.1운동 등 항일민족운동'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대적 서양병원 시작' 82%, '근대 교육 시작' 79%, '대학 설립' 7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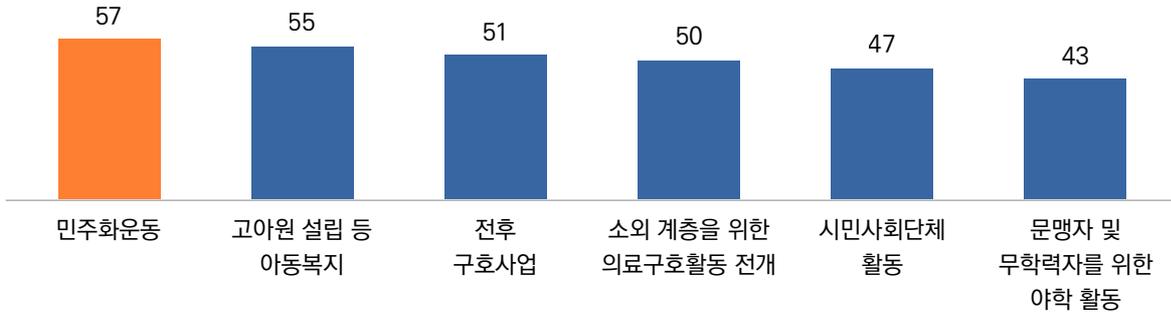
[그림]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해방 후엔 ‘민주화운동’(57%)과 ‘아동복지’(55%)!

- 해방 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용으로는 ‘민주화운동’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아원 설립 등 아동복지’ 55%, ‘전후 구호사업’ 51%,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구호활동 전개’가 5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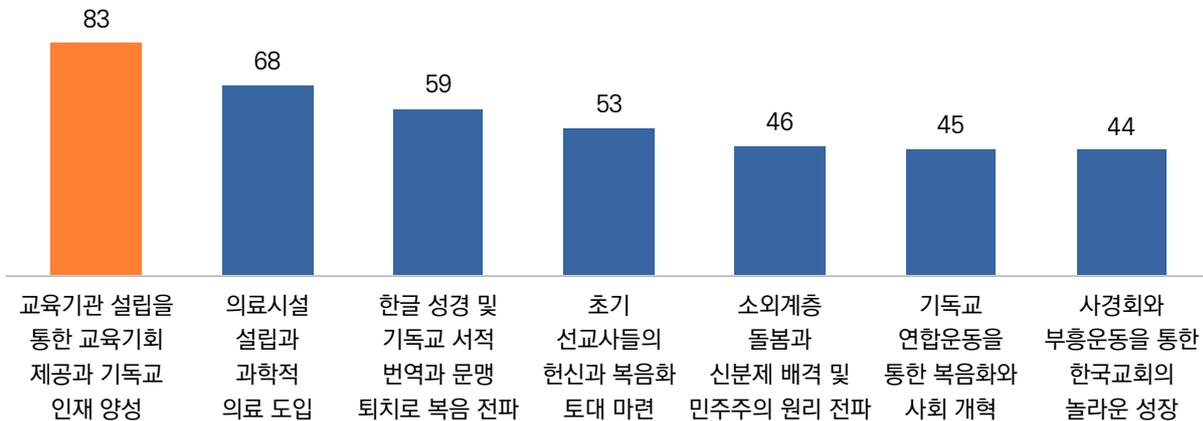
[그림] ‘해방 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해방 전 교회 성장의 핵심 활동, ‘교육 선교’(83%)가 주도!

-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해방 전’ 교회 내·외부 주요 활동에 관해 묻은 결과,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과 기독교 인재 양성’이 83%로 가장 높았다. ‘교육 선교’가 해방 전 한국교회 부흥과 전도에는 주효했던 것이다.
- 그다음으로 ‘의료시설 설립과 과학적 의료 도입’ 68%, ‘한글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번역과 문맹 퇴치로 복음 전파’ 5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해방 전’ 한국 기독교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교회 내·외부 활동*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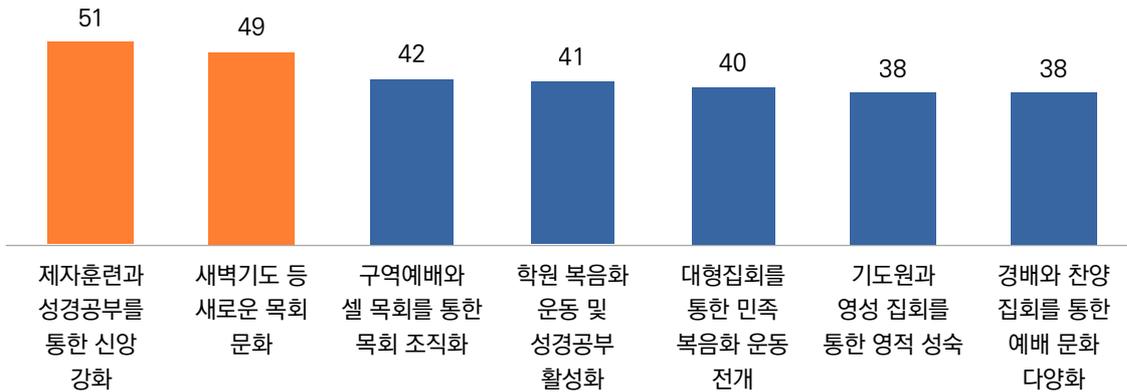


*무응답자 제외

해방 후 교회 부흥 이끈 핵심 활동, ‘성경공부·새벽기도’!

-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끈 주요 활동으로는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 강화’와 ‘새벽기도 등 새로운 목회 문화’가 각각 51%, 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역예배와 셀 목회를 통한 목회 조직화’ 42%, ‘학원 복음화 운동 및 성경공부 활성화’ 41%, ‘대형집회를 통한 민족복음화 운동 전개’ 40% 등의 순이었다.
- ‘해방 전’의 기독교가 교회 외적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복음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면 ‘해방 후’에는 교회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제자훈련/성경공부/새벽기도 등 본격적인 신앙 강화를 통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교회 내·외부 활동* (중복응답, 상위 7위, %)



*무응답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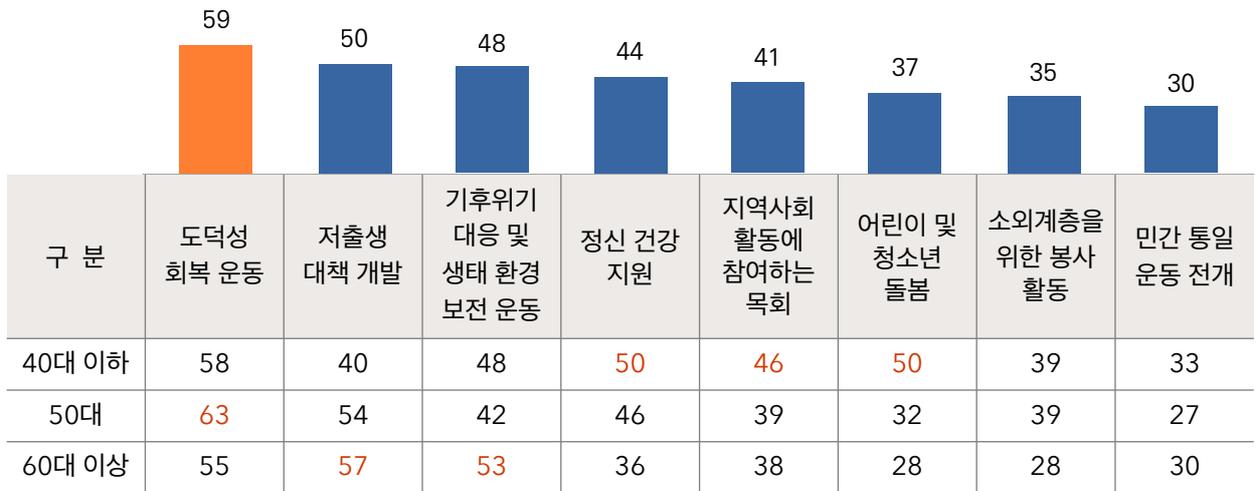
02

[한국교회의 과제]

사회발전기여 위해 강화해야 할 교회 활동, '도덕성 회복 운동'!

-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분야 활동을 강화해야 할까? 조사 결과, '도덕성 회복 운동'(5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출생 대책 개발' 50%,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환경 보전 운동' 48%, '정신 건강 지원' 44% 등의 순이었다.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들이다.
- 다만 연령별로는 교회가 강화해야 할 활동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해서는 50대가, '저출생 대책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에는 60대,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는 목회', '어린이 및 청소년 돌봄'에 대해서는 40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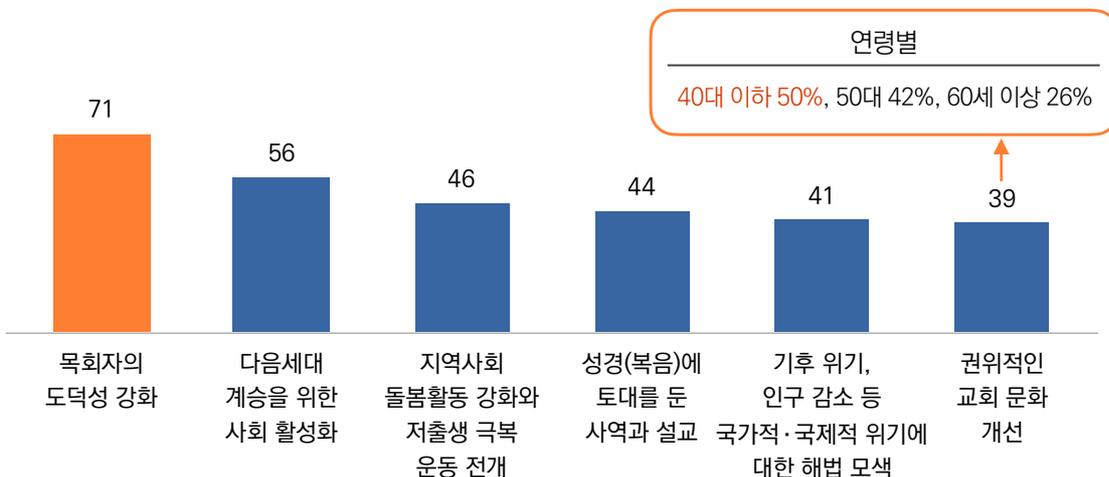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활동 (중복응답, 상위 8위, %)



한국교회의 우선 과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

- 이번에는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음세대 계승을 위한 사역 활성화' 56%, '지역사회 돌봄 활동 강화와 저출생 극복 운동 전개' 46% 등의 순이었다.
- 한편 '권위적인 교회 문화 개선'을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은 4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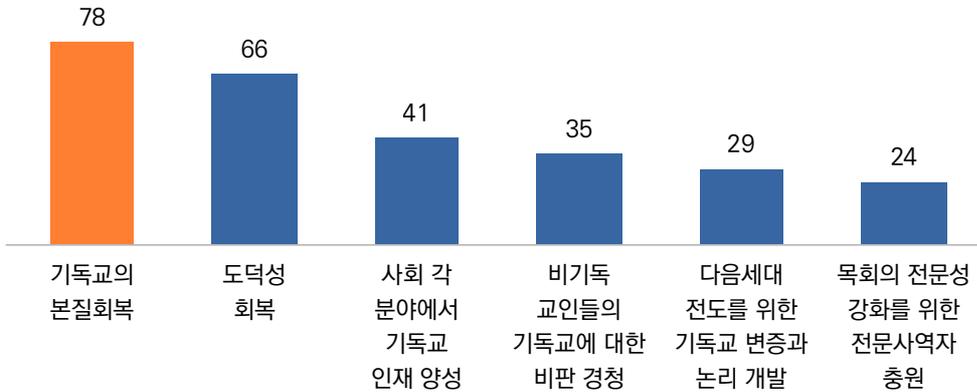
[그림] 향후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중복응답, 상위 6위, %)



향후 한국교회 성장의 열쇠, ‘본질·도덕성 회복’!

- 향후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을 묻은 결과, ‘기독교의 본질회복’이 1순위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교회가 강화해야 할 활동’과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도덕성 회복’이 2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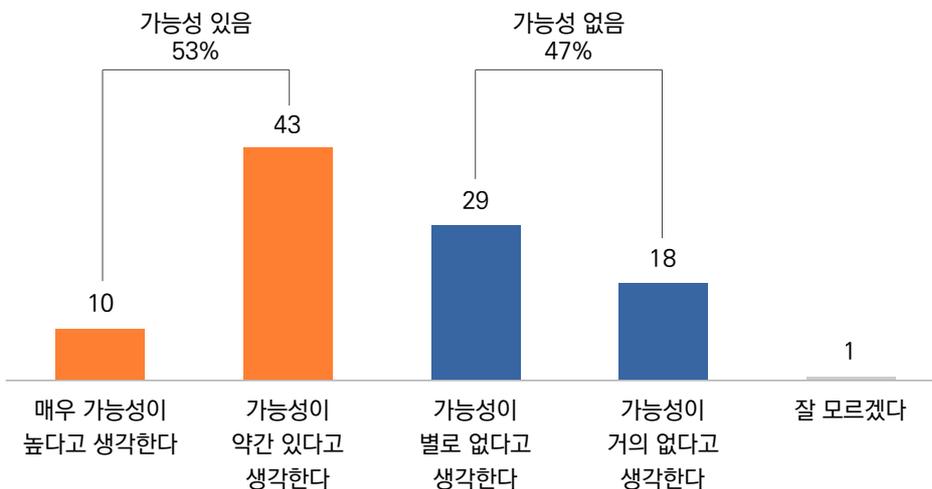
[그림] 향후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현재 교회 개척 시, ‘자립 가능성 있다’ 53% vs ‘없다’ 46%로 전망 엇갈려!

- 지금 교회 개척 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 있음’ 53%, ‘가능성이 없음’ 46%로 응답해 긍·부정 의견이 갈렸다.
-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현재 개척 시 ‘자립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53%나 된다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층이 교회 개척에 대해 희망적 의견을 어느정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림] 현재 교회 개척 시 자립교회로 성장 가능 여부* (%)



*무응답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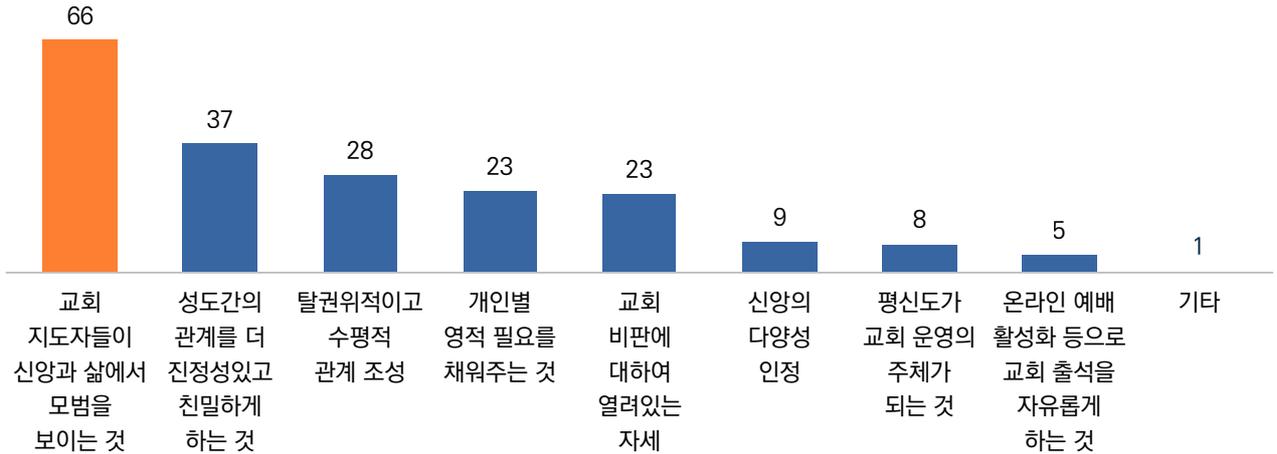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3

[한국교회의 방향성: 미래를 위한 전략과 비전] 가나안성도의 교회 복귀, '교회 지도자의 모범'이 핵심 key!

- 가나안성도를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진정성 있고 친밀하게 하는 것' 37%, '탈권위적이고 수평적 관계 조성' 28%, '개인별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교회 리더십의 숭선수범과 모범적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가나안성도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



*무응답자 제외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제언, '본질회복', '복음', '다음세대' 강조!

-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의견(자유응답)을 모아 키워드별 분류하여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분석하였다. '본질회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음', '다음세대', '초대교회', '성경', '도덕성 회복', '목회자의 각성과 변화' 등에 대한 의견 순이었다.

[그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의견 (자유응답)



이번호 요약

1.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것, ‘해방 전은 항일민족운동, 해방 후는 민주화운동’!

-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는 ‘항일민족운동’이 85%로 가장 높았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57%)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해방 후 교회 부흥 이끈 핵심 활동, ‘성경공부·새벽기도’!

-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끈 주요 활동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 강화’와 ‘새벽기도 등 새로운 목회 문화’가 각각 51%, 49%로 가장 높았다.

3. 교회가 우선 다뤄야 할 과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 순!

- 그렇다면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가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세대 계승을 위한 사역 활성화’(56%)도 2위로 꼽혔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도특집 3부작 선교 140주년, 한국을 바꾸다 | 1부 감리교 (CBSJOY)

관련 성경 구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47)

목회 적용점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으로,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기여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이다. 조사 결과는 과거 교육, 의료, 항일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다졌던 교회가, 해방 이후에는 신앙 강화 중심의 내적 성장에 주력해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교회가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에 응답하며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2025년 2월 발간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에 따르면, 사회봉사는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봉사를 교회의 필수적 의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이 개인적·사적 영역에만 집중되는 현대 신앙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나만 하나님 믿고 잘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신앙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과 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기존의 사회봉사 영역을 넘어, 국가의 복지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와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종교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부모에 해당하는 30~50대를 위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러한 실천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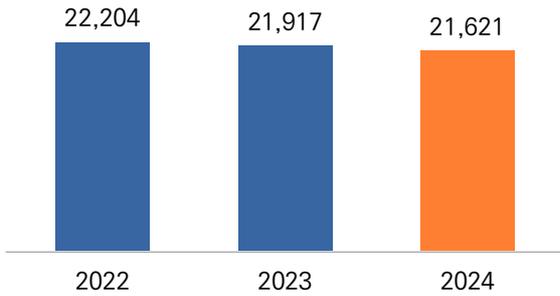
1.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
2. 한국의 사회지표 2024
(사회갈등, 사회적 고립감)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 장기 선교사, 2024년 기준 171개국에서 21,621명 사역중!

- 매년 2~3월이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한 한국선교현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올해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4 한국의 세계 선교 현황'을 살펴본다.
- 2024년말 기준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아래 Note 참조)는 17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21,621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선교사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기 선교사 현황 연도별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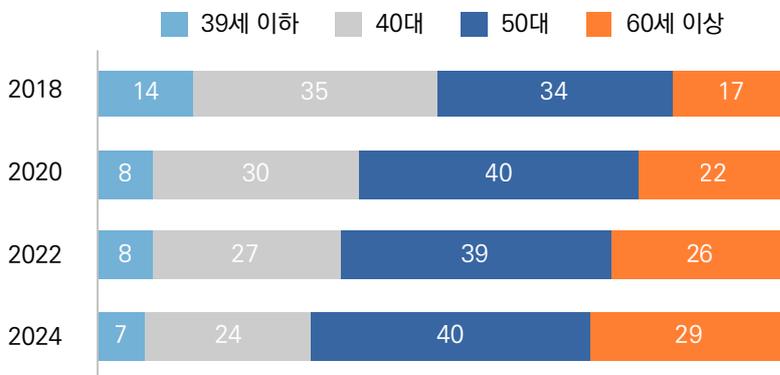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Note) 장기선교사의 정의 : 타문화권(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 기여)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함.
국내 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하며,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함.

지난 6년 사이, 50대 이상 선교사 51% → 69%!

-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29%, '40대' 24% 순의 분포를 보였다. '39세 이하' 젊은 선교사는 7%로 한 자리 수인 반면 '50세 이상'은 69%로 10명 중 7명 꼴로 나타나 젊은 선교사 수급이 크게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 50대 이상 선교사 비중만 보면 2018년 51%에서 2024년 69%로 6년 사이 18%p 증가했다. 이는 선교사 연령의 고령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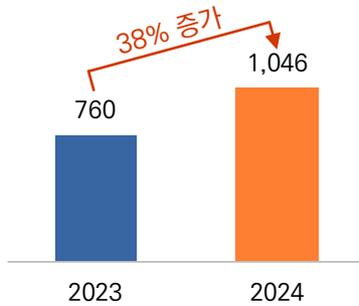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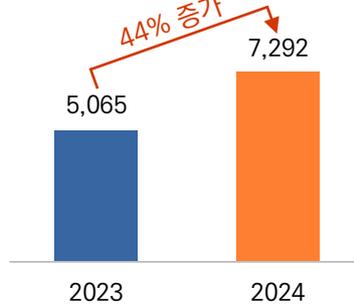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전년(2023년) 대비 44% 증가!

-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 참가자 수는 어떨까? 2023년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23년 760명에서 2024년은 1,046명으로 지난 1년 사이 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단기선교사* 범주에는 포함되진 않지만 선교 활동에 참여한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역시 2023년 5,065명에서 2024년 7,292명으로 전년 대비 44%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 (명)



[그림] 1년 미만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명)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조사, 2024.11.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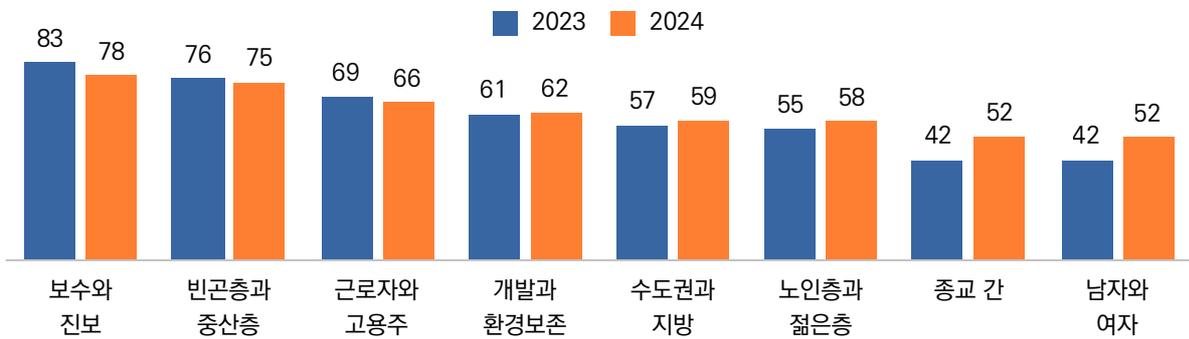
Note) 단기 선교사의 정의 :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함.



[한국의 사회지표 2024 (사회갈등, 사회적 고립감)] 국민 절반 이상, 종교·남녀 갈등 '심각' 인식

-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한다. 최근 발표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 중 '사회갈등'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먼저 '사회갈등 인식'을 보면 2024년 기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층과 중상층' 75%, '근로자와 고용주' 66% 등의 순이었다.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3년 이후 이번 조사까지 '정치이념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은 매년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2023년 동일 조사와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은 2024년 기준 '종교 갈등'(52%)과 '남녀 갈등'(52%)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전년(42%)보다 각각 10%p씩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사회갈등 인식 ('매우+약간 심하다' 비율*,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한국의 사회지표, 2025.03.2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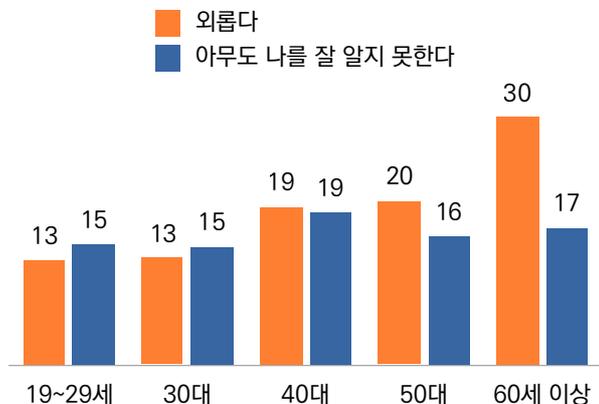
사회적 고립감 증가...60세 이상 30%는 '외롭다' !

-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외롭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해 보았다. 2024년 우리 국민 중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21%,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로 두 요인 모두 2021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보면 '외롭다'라고 느끼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3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림] 사회적 고립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그림]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 (2024,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한국의 사회지표, 2025.03.25.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7호 \(2025년 3월 4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개혁안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8호 \(2025년 3월 4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 평가 등

[국회의원 77.3% 불경기에도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

연합뉴스_2025.3.27.

사회 일반

[두 쪽 난 한국사회... '종교·남녀 갈등'까지 커졌다](#)

연합뉴스_2025.3.27.

[작년 서울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이 60대](#)

조선일보_2025.3.26.

[한부모가족 月 294만원 벌어들여...전체 가구 소득의 60% 수준](#)

연합뉴스_2025.3.30.

[작년 생성형 AI 인터넷 사용자 3명중 1명이 썼다...이용률 2배 ↑](#)

연합뉴스_2025.3.30.

[女 대졸 이상 비율, 80년대생부터 男 앞서](#)

조선일보_2025.3.28.

아동 · 청소년 · 청년

[고립·은둔 청소년 70%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국민일보_2025.3.26.

[청년층 평균 연소득 3천92만원...월평균 카드값은 147만원](#)

연합뉴스_2025.3.31.

[청소년 폭력 피해 늘었다...¼ 가까이 경험, 2년 前보다 6.3%P ↑](#)

연합뉴스_2025.4.1.

경제 · 기업

[대기업 아빠들 "육휴? 어휴"...상장사 톱10 중 8곳 10%도 안써](#)

중앙일보_2025.3.26.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근로자 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아"](#)

연합뉴스_2025.3.2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연차 8.2일, 전체 평균의 56% 그쳤다](#)

한겨레_2025.3.2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 괴롭힘 경험...일반직장 2배"](#)

연합뉴스_2025.3.30.

[회사 그만두고 장사해봐?...사장님 40%는 3년 안에 망했다](#)

중앙일보_2025.3.19.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연합뉴스_2025.3.31.

[빚더미 한국 ...자영업 연체자 15만명, 직장인은 5150만원 빚져](#)

매일경제_2025.3.27.

건강

[대치동 휩쓴 '공부 잘하는 약'...非ADHD 복용시 "충동·폭력성 ↑"](#)

조선일보_2025.3.31.

[눈 건조하고 피로하면... '20-20-20-20 규칙' 지켜보세요](#)

동아일보_2025.3.27.

기독교 · 종교

[폭삭 늙었수다... 성가대 65% 20대 대원 눈씻고 봐도 없네](#)

국민일보_2025.3.28.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 (뉴스엔조이)

- [① 저출산 사회의 숨은 공신이 한국교회라고? _2025.2.28.](#)
- [② 저출산 정죄하는 근거로 쓰던 창세기 1:28, 과거에는 다르게 해석했다 _2025.3.1.](#)
- [③ 우후죽순 생겨난 '저출생 대책 교계 단체'...해 온 일 보니 황당 _2025.3.4.](#)
- [④ 한기총 '인구 교육' 명목으로 정부에서 15년간 5억 지원... _2025.3.5.](#)
- [⑤ '결혼 안 하고 자녀 없는 삶' 상상하지 않는 교회 _2025.3.6.](#)
- [⑥ '아이 반드시 낳아야 한다' 개신교인 남성 73.5%, 여성은 50.6% _2025.3.28.](#)
- [⑦ "가장 실효성 없는 저출산 정책" 물어보니...1위 '동성애 대책 강화' _2025.3.29.](#)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명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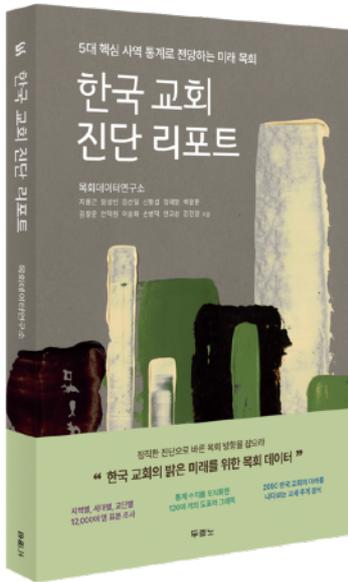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